

2023. 11. 7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문화본부 서울도서관

서울도서관장	오지은	2133-0200
--------	-----	-----------

도서관정책과장	김지혜	2133-0220
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3쪽

관련홈페이지 (서울도서관)	<a href="https://lib.seoul.go.kr/">https://lib.seoul.go.kr/</a>
-------------------	---

## 서울 곳곳을 독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적 도전 서울야외도서관 정책설명회 개최

- 서울도서관, 11.9.(목) 14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설명회 개최
- ‘책읽는 서울광장’, ‘광화문 책마당’ 운영 사례 소개를 통한 전국적 확산 기대
-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 대표 브랜드로서 국내외 각종대회에서 수상 잇따라

- 서울도서관이 야외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23.11.9(목) 오후2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‘서울야외도서관 정책설명회’를 개최한다.
- ‘서울 곳곳을 독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적 도전, 서울야외도서관 (Seoul Outdoor Library)’이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도서관이 운영 중인 야외도서관, ‘책읽는 서울광장’과 ‘광화문 책마당’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야외도서관의 개념 및 가치, 시행내용과 방법, 성과, 향후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고 끝으로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.
  - 서울야외도서관에 관심있는 전국 시·도, 교육청 및 민간기업(단체)를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았으며, 현재 전국 시군구 50여개 기관에서 약

150명이 참석 신청을 하였다.

※ 미신청자도 설명회 당일 현장 참석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.

- 서울도서관은 2022년부터 ‘책읽는 서울광장’, 2023년부터 ‘광화문책마당’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, 전국에서 관련 문의 및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독서 공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야외도서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.
  
- 서울야외도서관은 야외 공공장소를 대규모의 ‘책문화 공간’으로 조성하고, 연중 일정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.
  - 서울도서관에서는 2022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시작으로 ‘책읽는 서울광장’을 시작하였고, 2023년에는 ‘책읽는 서울광장’과 ‘광화문 책마당’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.
  - 도서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서관 공간 개념을 도서관 기존 건물에서 밖으로 확대한 도서관 서비스이며, 야외공간이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도서관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여 실내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.
  - 서울야외도서관은 건물 없는 도서관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, 휴식·토론·다양한 체험과 문화공연·독서가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도서관의 실험적 모델을 선보였다.
  
- ‘서울야외도서관’은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상징하는 도시의 대표 브랜드로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으며, 올해 ‘Green Library Award’ 국제상을 비롯하여 국내외 다수의 상을 수상하고 있다.

- 2023 국제도서관협회연맹(IFLA) 친환경 도서관(Green Library Award) 3등 수상  
※ 전국도서관 최초 국제상 수상
- 2023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특별상 (주최: 문화체육관광부)
- K-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등재 (주최: 문화체육관광부)
-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최고 행정공무원상 (주최: 대한민국 시군구협의회)
- 2023 지방공무원 정책 연구발표대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(주최: 행정안전부)
- 2023 정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예선 통과, 왕중왕전 진출 (주최: 행정안전부)  
※ 소통 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분야 25건 선정 (최종선정 11월말 예정)

□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“서울야외도서관 <책읽는 서울광장>과 <광화문 책마당>이 도서관의 서비스를 바꾸어 놓았다”며 “더 많은 지역에서 서울야외도서관과 같은 문화를 누리고 책을 가까이 하는 확장된 도서관 서비스가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